

원저

## 古代의 經脈診斷法 中 十二經標本脈診法에 관한 研究

이동휘 · 황민섭 · 윤종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 Abstract

## A study on Twelve meridian Biaoben(標本) pulse diagnosis method among the ancient meridian diagnosis method

Lee Dong-hee, Hwang Min-seob and Yoon Jong-hwa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 A study on <Lingchui, 靈樞·Weiqi, 衛氣> which described Twelve meridian Biaoben(標本) pulse diagnosis method.

**Methods:** A study on Twelve meridian Biaoben(標本) pulse diagnosis method which has the cognizance of Biaoben(標本) on upper and low twelve meridian as linear upper and low pulse diagnosis point.

**Results:** Twelve meridian Biaoben(標本) pulse diagnosis method is derived from using each twelve meridian pulse diagnosis and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ben(本) pulse point on wrist-ankle and the biao(標) pulse point on thorax-axillary-neck-head-face correspond to upper and low part of meridian for diagnosis and treatment which become the theory of "treat upper disease on low part, treat low disease on upper part".

**Conclusions:** Twelve meridian Biaoben(標本) pulse diagnosis method started confirming the general concept of Jue-symptom(厥症) and Jue-symptom(絕症) and developed upper and low pulse diagnosis point or acupuncture point to treatment.

- 접수 : 2004년 1월 5일 · 수정 : 2004년 1월 10일 · 채택 : 2004년 1월 17일  
· 교신저자 : 윤종화, 경북 경주시 용강동 357번지 동국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침구1과  
Tel. 054-770-1257 E-mail : item0916@chollian.net

**Key Words:** Twelve meridian Biaoben(標本) pulse diagnosis method, Treat upper disease on low part, treat low disease on upper part(上病下取, 下病上取).

## I. 緒 論

脈診은 經脈의 發見과 形成되는 過程의 經脈循診에서 起源하였고<sup>1)</sup>, 靜脈의 觀察에서 始作하여 動脈의 搏動을 按診하여 觸知할 수 있는 血管을 中心으로 經脈을 認識하여 經脈의 度量長短에 대나무 자를 利用하여 測定하였다<sup>2),3)</sup>.

先秦時期의 “脈”에 對한 認識은 經脈의 ‘脈’과 脈診의 ‘脈’의 意味가 混在되어 있었고 西漢初期에 脈診은 經脈에서 分離되었다<sup>1)</sup>.

최근 《素問》, 《靈樞》 以前の 先秦의 醫學 內容을 볼 수 있는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의 經脈, 《脈法》, 《陰陽脈死候》의 診斷, 《導引圖》, 《却穀食氣》의 氣功 導引, 《五十二病方》, 《養生方》, 《雜療方》의 藥物, 《合陰陽》의 性 등에 關한 十四種의 醫籍이 馬王堆의 漢代 古墳群에서 出土되었다<sup>4)</sup>.

《陰陽十一脈灸經》에는 “是僮則病”의 文句 뒤에 病症이 記述되어 있고, 《脈法》에는 比較 診斷의 方法이 있으며, 《難經·一難<sup>5)</sup>》 “十二經皆有動脈”하여 十二經에는 脈의 搏動處가 있고, 《靈樞·經脈》 “不與衆同, 是以知其何脈之動也”은 各 經脈의 比較 脈診法을 運用하고 있고, 《千金翼方·色脈·脈診大意<sup>6)</sup>》 “手足三陰三陽十二經皆有動脈”하여 各 經脈을 按診하는 動脈1處의 存在를 알 수 있다.

十二經脈의 各 經脈의 動脈診(이후 十二經脈脈診

으로 稱함)은 古醫籍에는 脈診의 名稱이 없고, 《陰陽十一脈灸經》, 《脈法》, 《素問》, 《靈樞》, 《難經》 및 《千金翼方》 등의 古醫書을 通하여 十二經脈脈診의 存在를 推論할 수 있으며, 鄧<sup>7)</sup>은 “古代의 遍身診法으로 三部九候診, 十二經脈遍診, 十二經脈標本診 및 藏醫脈診 등이 있다.”하였다.

이에 論者는 十二經脈의 變動을 觸診하는 十二經脈脈診의 運用하는 過程 中에 發現된 脈診法으로 보이는 《靈樞·衛氣》에 있는 十二經標本脈診法에 關하여 《黃帝內經太素》, 《千金要方》에 記載되어 있는 十二經標本の 部位를 研究하여 《素問·三部九候論》의 上中下의 天人地의 九候를 診脈하는 ‘三部九候診’과 聯關關係 및 《素問》 《靈樞》에서의 十二經標本脈診을 運用한 諸篇을 考察하여 十二經標本脈診法에 關하여 報告합니다.

注: 1. 動脈-古人들은 《素問·三部九候論》 “兩額之動脈”하여 血管의 搏動을 “動脈”으로 指稱하였고, 《內經》에는 動脈管, 靜脈管의 區別은 없고 二種類의 血液과 血清에 對한 認識이 있었다. 《靈樞·血絡論》 “出血而射者, 何也?”는 明確히 動脈의 血液이며, “血少黑而濁者, 何也?”는 靜脈의 血液이며, “出血清而半爲汁者, 何也?”는 血清의 認識이 分明하다.

近代의 張<sup>12)</sup>은 動脈을 發血管, 靜脈을 回血管이라 하였다. 그리고 動脈, 靜脈의 概念은 18세기 日本에서 번역된 최초의 解剖學의 翻譯醫書 《解體新書<sup>7)</sup>》에서 由來한 醫學用語로 생각하면 韓醫學의 古醫籍의 經脈과 脈診의 研究에 많은 것을 示唆한다.

## II. 本 論

十二經脈脈診의名稱은 韓醫學의 古醫籍에는 없으며 先秦의 文獻인 《陰陽十一脈灸經》, 《脈法》, 秦 兩漢의 文獻인 《素問·三部九候論》, 《靈樞·經脈》 등의 《內經》, 西漢의 著作인 《難經》 및 唐代的 《千金翼方》 등의 醫書를 통하여 十二經脈脈診은 先秦에서 漢代까지 運用된 脈診法으로 推論할 수 있다.

十二經脈의 發見初期에는 經脈의 概念과 脈診의 脈의 概念이 혼재되어 있었고 古人들의 脈의 認識은 間斷에서 複雜으로 深化되는 過程을 거치는 동안에 經脈의 走行을 觸診하여 搏動을 확인하는 過程에서 十二經脈脈診이 由來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鄧<sup>7)</sup>은 《足臂十一脈灸經》의 足少陽脈의 循行의 原文에서 “出于踝前……出于股外廉 出脇……出于項耳 出枕 出目外眦”에서 “出”字를 使用하여 全過程의 循行을 描寫하고 있으며 《明堂經》, 《難經》 呂廣, 楊玄操註, 《素問》 王冰註 및 《千金要方》 등의 醫書를 보면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의 十一脈의 循行에서 “出”字로 描寫되어 있는 部分은 모두 動脈處임을 알 수 있다 하였다.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의 經脈은 人體에 있어 一種의 上下 連繫의 規律이며 臟腑와 的 連繫는 없어 《脈法》의 “相脈” 즉 比較脈診의 方法 및 治療法은 十二經脈의 各 診脈處의 搏動力으로 各各의 經脈의 盛衰를 살피는 過程에서 萌芽하였다고 생각되며, 《靈樞·經脈》 “不與衆同, 是以知其何脈之動也”와 《靈樞·動脈》 “黃帝曰, 經脈十二, 而手太陰, 足少陰, 陽明獨動不休, 何也”의 文句 및 《素問·脈解》의 經脈病候는 十二經脈脈診의 病候의 解釋이며 《素問·至眞要大論》의 脈診部位는 十二經脈脈診의 部位와 같은 ‘某某某脈口’이다.

王<sup>8)</sup>은 “十二經脈의 搏動處에서 本經 및 絡脈 所屬의 臟腑의 病變을 反影하는 局部의 觀察法은 全面的인 觀察의 整體的인 診察方法으로 運用되었다”하였고, 鄧<sup>7)</sup>은 “後人들은 《靈樞·衛氣》의 標本을 古代的 動脈診의 部位로 解釋하지 않아 十二經標本診에 對한 理解가 不足하다.”하였다.

그리고 王<sup>8)</sup>은 “十二經脈脈診의 理論과 臨床運用은 《內經》의 成書時期的 前後에 長時間 運用된 方法이며 十二經脈脈診을 運用한 學派의 論文이 滙篇되어 《內經》에 遍在되어 있다”하였고, 鄧<sup>7)</sup>은 “十二經標本診과 三部九候診은 部位, 病理 및 治法에 있어 相互 關聯性이 있다”하였고, 또 王<sup>8)</sup>은 “十二經脈脈診과 三部九候診은 상호 다른 學派의 診斷法이며 時代的으로 同時代거나 十二經脈脈診이 조금 앞선 것이다”하였고, 鄧<sup>7)</sup>은 “十二經標本脈診法은 古人들이 脈診過程 중에서 發見된 脈診法이다.”하였다.

### 1. 十二經脈의 脈動處

十二經脈의 脈診은 中國의 古醫籍에는 없으며 先秦時代의 醫學文獻인 《陰陽十一脈灸經》, 《脈法》, 秦 兩漢時代의 文獻인 《素問·三部九候論》, 《靈樞·經脈》 등의 《內經》, 西漢時代의 著作인 《難經》 및 唐代的 《千金翼方》 등의 古醫籍을 통하여 推論할 수 있으며, 鄧<sup>7)</sup>은 “《易緯通卦驗》에는 具體的인 脈診의 部位는 없으나 四肢診脈의 十二處에서 診脈하여 나타나는 十二脈診病候가 記載되어 있고……《靈樞·衛氣》의 十二經의 標本은 脈診의 部位이다.”하였다.

馬王堆 漢墓(B.C 168년)의 出土 醫書 중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의 灸經, 《脈法》 및 《陰陽脈死候》는 現存하는 經脈, 經脈脈診, 治療 및 豫後에 關한 最初의 專門書籍이며, 診脈의 目的, 部位, 方法 및 脈象과 疾病의 關係 등을 論述하고 있다<sup>4), 15)~17)</sup>.

〈表 1〉 十二經脈의 脈動部位

十二經	呂 廣	楊 玄 操	滑 壽
足太陽	委中	委中	委中
足少陽	耳前	下關, 懸鐘	下關, 聽會
足陽明	趺上	衝陽, 人迎, 大迎	衝陽, 人迎, 大迎, 氣衝
手太陽	目外眦	瞳子膠	天窗
手少陽	客主人	客主人, 聽會	和膠
手陽明	口邊, 陽溪	地倉	合谷, 陽溪
足厥陰	人迎	面骨(回骨)	太衝, 五里, 陰廉
足少陰	內踝下	內踝上五寸間	太溪, 陰谷
足太陰	脾上	箕門	箕門, 衝門
手少陰	掖下	極泉, 靈道, 少海	極天
手心主	勞宮	勞宮	勞宮
手太陰	太淵	太淵, 尺澤, 俠白, 天府	中府, 雲門, 天府, 俠白

古代의 脈診方法들을 聚合하여 獨取寸口說을 立論한 《難經·一難》에서 “十二經皆有動脈”하여 十二經脈에는 各經脈을 按診할 수 있는 動脈處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sup>9),10)</sup> 唐代의 《難經集注<sup>11)</sup>》, 元代의 《難經本義<sup>5)</sup>》, 清代의 《難經洞注箋正<sup>12)</sup>》 등의 《難經》 註釋書에 약간의 差異는 있지만 十二經脈의 動脈處가 記載되어 있고, 《針灸甲乙經》, 《銅人腧穴針灸圖經》, 《醫宗金監·刺灸心法要訣》 등의 針灸書籍에 “動脈應手”하는 經穴이 記錄되어 있다.

近代의 張<sup>12)</sup>은 “淺部の 動脈處는 ‘扞而可得’하면 頭額 項, 頰, 肩, 背, 臂, 頸, 手指, 足附 및 足趾間에서 觸知할 수 있다”하였고, 《千金翼方·色脈·脈診大意<sup>6)</sup>》 “手足三陰三陽十二經皆有動脈”하여 十二經脈에는 各經脈을 按診하는 動脈處가 있음을 推斷할 수 있다.

《難經》 以後의 《針灸甲乙經》, 《千金方》, 《銅人腧穴針灸圖經》 등에 記載된 十二經脈의 經穴에 “動脈應手”의 部位는 差異는 있지만 《難經》의 注家들인 呂廣, 楊玄操, 滑壽 등이 언급한 動脈의 搏動處이며, 張<sup>12)</sup>은 “動脈은 無時無動하고 古人들이 言及한 動脈處는 모두 肌肉의 淺表에 있는 動脈의 按診處들은 聯關關係가 없으므로 古醫籍의 動脈處의 差異를 穿鑿할 理由가 없다”하였다.

한편, 葉<sup>13)</sup>은 “身體의 動脈處는 《明堂針灸圖》, 《甲乙經》 등의 醫籍에는 20餘穴이 있으며 10餘穴만이 診脈에 利用되었고 10餘穴 중에 足脈의 太溪, 衝陽, 太衝이 重要하다”하였고, 徐<sup>14)</sup>는 “手太陰의 太淵, 足陽明의 人迎, 足少陰의 太溪의 動脈 등 3곳 以外의 十二經脈의 動脈處는 단지 經穴의 眞僞를 살피는 取穴法으로 利用되고 있다”하였다.

## 2. 十二經標本脈診法의 意義

古人들의 脈에 대한 認識은 間斷에서 複雜으로 不斷히 深化되는 過程을 거쳤고 不同한 時期, 不同한 醫家들의 腕·踝部의 診斷 및 穴에서 遠隔部位의 病症에 對한 認識은 완전히 같을 수 는 없으며 《靈樞·衛氣》의 標의 部位는 同一하지 않고 足太陰, 足少陽의 “標”는 背腧와 舌이며 이는 經脈 “標”部에 對한 不同한 認識의 反映이고, 오히려 手少陰의 “標”部는 背腧에 있는 것은 이미 標部가 診脈의 部位라는 原意를 相失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鄧<sup>7)</sup>은 “《衛氣》, 《本輸》, 《寒熱病》 및 《黃帝內經太素·陰陽合》 등의 醫書와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의 十一脈의 始終을 比較 考察하면 經脈의 標의 過程을 考察할 수 있다.”하였다.

《靈樞·本輸》에 記載되어 있는 足陽明 手陽明, 手太陽, 足太陽, 足少陽, 手少陽, 手太陰, 手心主의 頭, 項, 腋, 脇部의 脈은 《黃帝內經太素·經脈標本》 注, 《素問·病能論》의 王水注를 根據로 보

〈表 2〉 十二經標本診의 標脈에 該當하는 <靈樞·本輸>의 '某' 此脈

經脈名	'某' 此脈	部 位
任 脈	缺盆之中	天 突
足陽明	一次任脈側之動脈	人 迎
手陽明	二 次	扶 突
手太陽	三 次	天 窓
足少陽	四 次	天 容
手少陽	五 次	天 牖
足太陽	七 次	天 柱
督 脈	七次脈頸中央之脈	風 府
手太陰	腋內動脈	天 府
手心主	腋下三寸	天 池

면 "天"字 穴名の "天容", "天窓", "天牖", "天柱", "天府", "天池", "天五會(人迎)" 등이 經脈의 標本의 標部の 診脈部位이다<sup>7)</sup>.

이와 같은 標部の 確立은 古人의 針灸治療의 臨床實踐의 經驗總結이며, 古人들은 足太陽脈口(足太陽穴)의 發現은 足外踝下方의 脈動處(崑崙穴處에 相當)에서 "目如脫, 項如拔, 頭眩痛, 目眩眩, 癱疾"等症을 診斷과 병행하여 足太陽脈口에 刺灸 등의 治療를 하고, 項部の "天柱"脈에서 "目如脫, 項似撥, 頭痛重, 目眩眩, 癱疾"等症의 診斷과 治療를 並行하였고 此症들은 後에 足太陽病證의 是動則病의 病症으로 成立되었다.

이외에 "天窓"의 異名은 "窓籠"이며 "天窓", "窓籠"은 足少陽의 "標"脈으로 볼 수 있으며 <黃帝內經太素·府病合輸>에서 頰下動脈을 "窓籠" 및 耳前의 上下動脈을 "窓籠"이라 稱하여 모두 足少陽의 "標"部로 記載하고 있다. 鄧<sup>7)</sup>은 "十二經標本脈診의 頭面部의 診脈處는 三部九候診法의 "上"部로 被用되었고, 相對的으로 經脈의 本部는 固定되어 있고 古代에 일부의 醫家들은 經脈의 診脈處를 經脈의 "本"部로 取하지 않고 手足의 五指의 末端을 經

〈表 3〉 "足太陽"穴 및 崑崙穴과 天柱穴의 主治의 比較

	"足太陽"穴	足太陽의 是動則病 및 厥證	
脈經	足小指本節後	<厥論>	巨陽之厥：腫首斗重 足不能行 發爲胸仆
千金要方	足小指外側本節後 外踝下		
千金翼方	外踝下 外踝下後一寸 宛宛中		
敦煌卷子	外踝後	<陰陽>	是動則病：衝頭痛, 目似脫, 項似拔…… 膈如裂, 此爲蹠厥
原穴 脈口	足外側大骨下 足外踝後跟骨上細動脈應手	<經脈>	是動則病 衝頭痛 目似脫 項如拔…… 膈如裂 是爲蹠厥
崑崙主治	主瘞 脚如結 膈如裂…… 目如脫 項如拔…… 目眩眩…… 癱疾		
天柱主治	眩 頭痛重 目如脫 項似拔…… 目眩眩赤痛…… 癱疾		

脈의 脈診 部位로 取하였다." 하였다.

古人들은 上下相應의 標, 本脈의 相連하는 形式의 形成은 最初의 間斷한 上下의 兩點을 連結하는 腕·踝部의 本脈處에서 起始하여 頭面, 軀幹部의 標脈을 終點으로 하는 "自下而上"하는 經脈의 循行路線을 形成하였다. 그리고 <足臂十一脈灸經<sup>15)</sup>> "臂少陽脈", <陰陽十一脈灸經<sup>16)</sup>> "臂少陰脈" "臂太陰脈" 등은 最初 經脈의 上下 連繫의 規律을 保有하고 있으며 이후 兩點을 連結하는 線上에서 많은 動脈處를 發現하여 起點과 終點을 連結하는 單純한 形式에서 兩點上의 多點을 連結하는 形式으로 發展하였다.

馬王堆의 十一脈의 循行의 路線을 描述하는 文字에서 "出"字를 大量으로 사용하고 있고 古人들은 "行于分肉之間, 常深不可見<sup>18)</sup>의 脈을 "經脈"하였고, '某某' 部位에서 볼 수 있거나 脈의 搏動을 觸知할 수 있는 곳을 經脈이 體表로 出하는 것으로 認

識하여 “出”字를 使用하여 十一脈의 循行路線을 描寫하였다고 생각되며, 鄧<sup>7)</sup>은 《足臂十一脈灸經》의 足少陽脈의 循行의 原文에서 “出于踝前……出于股外 廉 出脇……出于項 耳 出枕 出目外眦”에서 “出”字를 使用하여 全過程의 循行을 描寫하고 있으며 《明堂經》 《難經》 呂廣, 楊玄操註, 《素問》 王冰註 및 《千金要方》 등의 醫書를 보면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의 十一脈의 循行에서 “出”字 로 描術되어 있는 部分은 모두 動脈處임을 알 수 있다.……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의 十一脈의 起點은 “經脈穴”의 部位와 類似하다.” 하였다.

論者は 十二經標本脈診의 動脈處의 標本脈의 兩點을 上下로 連繫하는 路線을 보면 馬王堆 帛書의 《陰陽十一脈灸經》, 《足臂十一脈灸經》의 十一脈의 經脈循行圖의 描寫와 近似하다고 思料된다.

### 3. 十二經標本脈診法의 部位

十二經의 標本脈은 古人들이 脈診의 實踐過程 中에서 發現된 脈診法으로 十二經의 標本의 部位에 關한 記載는 現存하는 文獻으로는 《黃帝內經太素》, 《千金要方》의 記載에서 部位가 一致한다.

十二經脈脈診의 名稱은 韓醫學의 古醫籍에는 없으며 《脈法》, 《難經》 및 《千金翼方》 등의 古醫籍을 보면 先秦에서 漢代까지 運用된 脈診法으로 볼 수 있으며, 鄧<sup>7)</sup>은 “《易緯通卦驗》에는 西漢에서 流行한 卦氣說을 影響을 받은 十二脈診病候가 記載되어 있고…… 十二經脈脈診의 部位는 《黃帝蝦蟆經》, 《脈經》, 《諸病源候論》, 《千金要方》, 《千金翼方》 및 《太平聖惠方》 등의 十二經脈脈診에 該當하는 部位의 記載를 綜合하여 考察하면 經脈穴에 對하여 알 수 있다.” 하였다.(예. 足陽明穴 및 手陽明穴)

그리고 《靈樞·衛氣》 “能別陰陽十二經者, 知病之所生” 하였고 鄧<sup>7)</sup>은 “《衛氣》의 標本은 十二經標本診의 經脈의 循行에서 始終의 上下의 診脈處이며

〈表 4〉 《靈樞·衛氣》의 十二經의 標本

	本		標	
	部 位	穴 位	部 位	穴 位
足太陽	在跟以上五寸中	跗陽	標在兩絡命門…目也	睛明
足少陽	在窺陰之間	足窺陰	標在窓籠之前…耳也	聽宮
足少陰	在內踝上下三寸中	復溜 交信	標在背膕與舌下兩脈也	腎俞 廉泉
足厥陰	在行間上五寸所	中封	標在背膕也	肝俞
足陽明	在厲兌	厲兌	標在人迎頰在頰頰也	人迎
足太陰	在中封前上四寸之中	三陰交	標在背膕與舌本也	脾俞 廉泉
手太陽	在外踝之後	養老	標在命門之上一寸也	
手少陽	小指次指之間上二寸	液門	標在耳後上角下外眦也	角孫 絲竹空
手陽明	在肘骨中上至別陽	曲池 臂臑	上至別陽 標在頰下合鉗上也	扶突
手太陰	在寸口之中	太淵	標在腋內動脈也	天府
手少陰	在銳骨之端	神門	標在背膕也	心俞
手心主	在掌後兩筋之間二寸中	內關	標在腋下下三寸也	天池

凡候此者 下虛則厥 下盛則熱 上虛則眩 上盛則熱痛。故石者節而止之 虛者引而起之

《九針十二原》의 十二原穴은 十二經標本診의 本部의 診脈處이며 《本輸》의 項, 脇 및 腋部의 此脈은 標部의 診脈處이며, 十二經標本診의 標部는 三部九候診의 ‘上’部의 診脈處로 被用되고, 手足陽明의 脈口는 本部와 相聯되고 頸, 項部의 足陽明의 ‘人迎’脈은 脈診에 利用되고 있다.” 하였다.

한편 古代의 遍身診法으로 十二經脈脈診, 三部九

〈表 5〉 “足陽明”과 “手陽明”穴

	足陽明	手陽明
蝦蟆經	跗上五寸	
脈經	足上動脈	手腕中
諸病源候論	太衝上二寸	大指本節後宛宛中
龍門石刻方 千金要方	足跗上三寸動脈	
千金翼方	足大拇指奇後三寸	腕後陷中動脈大指奇後
聖惠方	足大指歧後二寸	虎口曲紋頭
原穴 脈口	足跗上五寸動脈 跗陽脈	手大指歧骨間 手大指歧骨間 至腕中動脈

候診 및 十二經標本診 등이 있으며, 論者は 《脈法》의 氣의 概念, 脈診의 方法, 症狀, 治療法 및 여러 脈이 發病한 경우의 先後治療의 原則과 《靈樞·衛氣》의 標本을 診脈處로 본 十二經標本診法의 方法, 症狀, 治療法, 및 經의 標本 중 標의 背部에 位置 및 《本輸》의 項, 胸, 脇部의 次脈의 條文을 比較해 보면 十二經標本診은 十二經脈脈診에서 延變된 脈診方法 혹은 不同한 時代, 不同한 學派의 脈診法으로 생각되며, 鄧<sup>7)</sup>은 “十二經標本脈診은 古人들이 脈診을 臨床實踐하는 過程에서 發現된 脈診法이며…… 《靈樞·衛氣》의 內容은 不同한 時期의 標本脈診의 內容을 系統的으로 總括한 內容이다.” 하였다.

4. 古代 醫籍에서의 十二經標本脈診의 運用  
《靈樞·經脈》, 《黃帝內經太素·府病合輸》 및 《千金要方·肝臟<sup>20)</sup>》에서는 十二經標本脈診의 運營 例를 볼 수 있다.

(1) 脈之卒然動者, 皆邪氣居之, 留于本末. 不動(寒)則熱, 不堅則陷且空, 不與衆同, 是以知何脈之動也. (《靈樞·經脈》)

注: “不動則熱”은 마땅히 “不寒則熱”로 하는 것이 바르고, 下文의 “堅”과 “陷”은 相對되는 文句이며, “寒”과 “熱”이 相對가 되게 作成하는 것이 當然한 處理라고 생각된다. 《終始》, 《禁服》 등의 篇에서도 本末에서 “察寒熱”이라 明確히 말하고 있다. 脈의 寒熱은 《三部九候論》 중의 “七診” 중의 二診이며, 《陰陽十一脈灸經》, 《脈經》의 卷十의 “寒”, “熱”, “虛”, “實” 등의 異常變化를 모두 “動”이라 하였다.

此文의 原意는 上下脈의 標本脈을 살펴 或寒, 或熱, 或堅盛, 或虛陷 등의 他脈과 不同한 脈象을 살펴 此脈의 變動을 診斷하는 方法이며 《脈法》의 “有過之脈”을 診斷하는 것을 說明한다고 생각된다.

(2) 臆病者, 善太息, 口苦…… 候在足少陽之本末, 亦視其脈之陷下灸之, 其寒熱者 取陽陵泉. (《黃帝內經太素·府病合輸<sup>19)</sup>》)

注: 此文은 《經脈》의 足少陽의 病候이며 診脈의 方法 및 部位는 足少陽의 標本脈의 本末을 寒, 熱, 盛, 陷의 脈象을 살펴 治療의 原則을 定하는 것이며, (1)의 條文의 具體的인 說明으로 (1)의 條文과 比較하여 考察하여야 한다.

(3) 足少陽之脈…… 是脈本在窺陰之間, 應在窓籠之前. 窓籠者 言上下脈, 以手按之動者是. (《千金要方·肝臟<sup>20)</sup>》)

注: 《千金要方》에서는 《靈樞·衛氣》의 표本 중에서 “標”는 “應”字로 作成되어 있으며, 또 足厥陰, 手少陰의 “應” 및 足陽明, 手陽明, 足太陽의 “本”의 下에 “同會于手太陰(脈口)”로 注를 하여 “本”과 “末”의 部位가 脈診의 部位임을 明確히 하였고, 下의 “本”이 動하면 上에서 “末”이 相應하는 標本の 關係를 說明하였고 《素問·三部九候論》의 “九候之相應也, 上下若一”의 意義와 相同하다.

(4) 厥頭痛 頭痛甚 耳前後脈湧有熱 瀉出其血 後取足少陽. (《靈樞·厥病》)

注: 此條의 針灸治療는 足少陽의 “標” “本”의 部位에 相應하는 穴을 取穴하여 厥頭痛을 治療하는 方法이며, 鄧<sup>7)</sup>은 上下의 標本의 經脈의 連繫는 古人들의 針灸治療의 實踐에서 由來하였다고 생각된다.

(5) 終始者 經脈爲紀…… 不病者 脈口人迎應四時也. …… 本末之寒溫之相守司也…… 形肉血氣 必相稱也, 是謂平人. (《靈樞·終始》)

注: 《靈樞·終始》는 《靈樞·經脈》의 循環經脈의 陰陽의 有餘不足을 診斷하는 經脈診斷의 人迎寸口診을 運用하는 《靈樞》에서 代表的인 篇에서도 《靈樞·衛氣》의 十二經의 上下의 始終處에서 診斷하는 十二經標本診으로 十二經의 上下의 寒溫를 診斷에 運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

### III. 考 察

최근 經脈의 起源에 對하여 先秦의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은 “視之可見” 할 수 있는 靜脈의 觀察에서 始作하여, 漢代에서는 《素問·離合眞邪論》 “捫而循之, …… 彈而怒之” 등의 “切之可得” 하여 具體的으로 觀察할 수 있는 血管과의 相關性을 提起하고 있다<sup>2)</sup>. 그리고 經脈의 假說 中 血管과의 相關說은 先秦, 秦 및 漢代의 醫家들의 ‘脈’에 對한 깊은 穿鑿이 필요하다<sup>3)</sup>.

先秦 醫家들의 脈의 概念은 經脈 과 脈診의 意味가 分利되지 않고 混再되어 있어 經脈循診의 動脈의 搏動處에서 經脈의 走行을 確認하는 過程에서 脈診의 概念이 萌芽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經脈과 絡脈의 發見이 促進되어 經絡의 概念이 成立되고 또 脈

學의 飛躍의인 發展으로 脈은 經脈의 ‘脈’에서 脈診의 ‘脈’의 意味로 代替되어 西漢初期에 脈學이 成立되어 獨立되었다<sup>4)</sup>.

脈診의 起源은 全國時代의 扁鵲이 脈診을 行한 記錄(B.C 5세기)으로 推測할 수 있으며 西漢時期의 倉公은 《黃帝扁鵲之脈書》의 古代 脈書를 傳受받아 繼承한 記錄(B.C 180年頃)이 있다<sup>20)</sup>. 龍<sup>3)</sup>은 “《素問》에 引用된 古代의 醫書 中에서 《素問 視從容論》의 ‘《脈經》 上下篇’은 倉公이 傳受한 醫書 十部 中 一部의 脈書일 가능성이 있다” 하였다.

한편 《史記·扁鵲倉公列傳》의 B.C 2세기 倉公 醫案의 脈診은 寸口診과 十二經脈脈診이며, 《脈經》의 扁鵲脈書의 四篇을 보면 《扁鵲脈書》는 寸口診의 內容으로 推測하고, B.C 3세기 戰國末의 著作으로 推定되는 馬王堆(B.C 168년) 醫書 中 《陰陽十一脈灸經》 《足臂十一脈灸經》의 灸經과 《脈法》 등은 經脈과 脈診에 對한 最初의 書籍으로 診脈의 部位, 方法 및 先秦時代의 比較 脈診法 등으로 類推하여 보면 《黃帝脈書》는 經脈診脈의 內容으로 推論해 볼 수 있다<sup>3), 21)</sup>.

滑<sup>5)</sup>은 《難經本義·難經彙考》 “古人之於脈, 其察之固非一道矣; 然今世通行唯寸關尺之法爲最要” 하여 古代의 脈診의 方法은 多樣하다 하였고, 徐<sup>14)</sup>는 《素問》 《靈樞》에 三部九候診, 人迎寸口診, 寸口診 등의 脈診法이 있다 하였고, 脈診의 方法으로 《內經》에서는 十二經脈脈診 `人迎氣口診` 三部九候診, 尺部觸診 `氣口脈診` 등이 있으며, 《難經》에서는 氣口脈診, 三部九候診 `陰陽法` `輕重法` `六十首` 및 五十動法 등이 있으며, 《傷寒論》 《金匱要略》 《脈經》에서 氣口脈診 `趺陽脈診` `太谿脈診` 등이 있다. 그리고 鄧<sup>7)</sup>은 “古代의 脈診法으로 三部九候診, 十二經脈遍診法, 十二經標本診法, 足大指間脈診法, 耳後間絡脈診法, 癰疽脈診法, 手肝脈診法 및 臧醫脈診法이 있다.” 하였다.

한편, 余<sup>22)</sup>는 “古代 灸經 中 《足臂十一脈灸經》



의 十一脈의 走向은 완전히 向心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靈樞》의 <本輸> <經筋> <根結> <衛氣> 등 四篇의 論文에 部分的 혹은 全文의 形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靈樞·衛氣》의 十二經脈의 標本의 問題를 論述하고 있는데, 十二經의 本은 四肢의 末梢에 있고 標는 軀幹에 있어 經脈의 標本은 실제로 經脈의 起止를 말하는 것으로 經脈이 出하는 것이 本이고 經脈의 末이 標가 된다.” 하였고, 鄧<sup>7)</sup>은 “十二經의 標本을 人體의 上下를 連結하여 經脈을 診斷하는 診脈의 部位로 解釋하여야 하는데, 後人들은 《靈樞·衛氣》의 標本을 古代의 動脈診의 部位로 解釋하지 않아 十二經標本診에 對한 理解가 不足하다.” 하였다.

十二經標本脈診은 古人들이 脈診을 臨床實踐하는 過程에서 發現된 脈診法이며……《靈樞·衛氣》의 內容은 不同한 時期의 標本脈診의 內容을 系統的으로 總括한 內容이며<sup>7)</sup>, 《足臂十一脈灸經》《陰陽十一脈灸經》《脈法》 및 倉公의 醫案 등에서 運用되는 經脈의 診斷法인 十二經脈脈診을 運用한 醫家들은 經脈과 臟腑의 連繫에 있어 十二經脈脈診을 《靈樞·衛氣》에서 五臟六腑 營氣 및 衛氣의 概念을 定立하여 上(標) 下(本)의 動脈處를 連繫한 十二經標本診을 運用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靈樞·衛氣》에는 營氣와 衛氣의 生理機能, 十二經의 標本穴의 所在 및 胸腹頭脛의 氣街 및 主治하는 疾病의 範圍를 紹介하고, 經脈의 虛實을 辨別하여 補瀉法의 方法을 記述하고 있으며, 六經의 標本에 對하여 理解하면 疾病의 所在하는 經脈, 疾病의 高下, 氣血의 鬱滯를 푸는 方法 및 補瀉를 하는 經脈을 알 수 있는 方法이 記述되어 있으며, 또 《靈樞·衛氣》의 “能知六經標本者, 可以無惑于天下”의 文句를 보면 經脈學說을 根據로 한 疾病의 認識 및 治療에 있어 十二經脈脈診보다는 進一步한 脈診의 方法으로 古代 醫家들이 認識하였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으며, 《靈樞·衛氣》에는 十二經標本脈診의 운영에

다른 上下의 標本脈의 異常에 따른 症狀을 上下의 部位의 “寒” “熱” “虛” “實”에 따라 區分하는 方法을 “凡候此者 下虛則厥 下盛則熱 上虛則眩 上盛則熱痛. 故實者絕而止之 虛者引而起之” 하였고 針治療의 方法을 提示하였고 具體의인 穴名은 없다.

論者は 古人들의 十二經脈의 標本의 脈의 認識은 經脈의 上下關係의 深化시키는 過程에서 經脈病候의 診斷 및 治療에 많은 變化가 到來하였을 것으로 思料된다.

첫째, 經脈病候의 認識의 深化과정을 보면, 馬王堆 漢墓에서 出土된 《足臂十一脈灸經》《陰陽十一脈灸經》은 經脈專門書이며 《足臂十一脈灸經》은 體表의 經脈의 循行部位를 認識하는 過程에서 體表爲主의 痛, 腫, 不仁, 寒, 熱 등의 病症이며 《靈樞·刺節眞邪》 “有一脈生數十病者, 或痛, 或腫, 或熱, 或寒, 或痺, 或不仁, 變化無窮”의 文句는 《足臂十一脈灸經》의 經脈病候의 概括이며, 《陰陽十一脈灸經》에서는 病候를 “是動則病”과 “其所產病”으로 나누어 分類하였고, 所產病은 《足臂十一脈灸經》의 病候에서 淵源하였고, “是動則病”은 各 經脈의 腕踝部位의 脈診處에서의 脈診에 의해 異常 脈이 나타날 때의 病證이다.

또한 《素問·厥論》에는 六經脈厥證候와 手足十一經脈의 厥證이 記載되어 있고 六經脈의 厥證은 《陰陽十一脈灸經》의 是動則病과 類似하고, 《鍼灸甲乙經<sup>23)</sup>》의 卷十二第八 篇名은 “手足陽明少陽脈動發喉痺咽痛”이며, 《素問·厥論》의 “手足陽明少陽厥逆, 發喉痺, 噎腫, 瘕, 治主病者”과 비교하면 한번은 “脈動”하고 한번은 “厥逆”하였고, 《諸病源候論<sup>24)</sup>》의 卷十六의 心腹相引痛候篇에 “診其脈, 太陽脈厥逆, 筋急攣, 心痛引下腹”하여 《素問·厥論》의 “太陰厥逆, 筋急攣, 心痛引腹, 治主病者.”은 脈診의 證候이며, 卷二十九의 耳聾候篇에 “手少陽之脈動而氣厥逆而耳聾者, 其候耳內輝輝焯焯也”하여 手少陽脈의 是動病의 “耳聾輝輝焯焯”에 “脈動”과 “氣厥

〈表 6〉 六經의 厥 및 厥逆證

經名	厥 證	經名	厥 逆 證
巨陽之厥	腫斗腫 足不能行 發爲胸仆	太陽厥逆	僵仆 區血善衄
陽明之厥	顛疾欲走呼…… 妄見而妄言	陽明厥逆	喘咳身熱 善惊衄嘔血
少陽之厥	暴聾頰腫 脇痛…… 斡不可而運	少陽厥逆	機關不利者…… 惊者死
太陰之厥	腹滿臞脹…… 不得臥	太陰厥逆	斡急擊 心痛引腹 治主病者
少陰之厥	口乾溺赤 腹滿心痛	少陰厥逆	虛滿嘔逆 下泄清 治主病者
厥陰之厥	小腹腫痛…… 陰縮腫 斡內熱	厥陰厥逆	擊 腰痛 虛滿前閉 譫言
		手太陰厥逆	虛滿而咳 善嘔沫 治主病者
		手心主少陰厥逆	心痛引喉 身熱 死不可治
		手太陽厥逆	耳聾泣出 項不可以顧……
		手陽明少陽厥逆	發喉痺 噎腫 瘰

逆”을 同時에 使用하고 있으며, “脈動”과 “某厥”이 脈診病候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十二經脈의 腕 踝部의 本部和 脇 腋 頭 面의 軀幹部의 動脈處에서 各經脈의 本 標部의 脈에서 上 下部의 脈이 相應하는 것을 診斷하는 方法은 上 下部의 病理的인 變化의 把握이 容易하고 명확히 認識할 수 있어, 《素問·厥論》에 記載되어 있는 寒熱의 厥, 六經脈의 厥, 厥逆의 狀態를 明確히 把握할 수 있어 “凡候此者 下虛則厥 下盛則熱 上虛則眩 上盛則熱痛.” 하였다고 생각된다.

둘째, 治療方法의 變化를 보면 早期의 針刺治療는 大部分 脈을 刺하는 方法이며 이와 같은 方法은 《馬

王堆》의 書籍 《素問》 《靈樞》 뿐만 아니라 非醫籍의 古典에도 있다.

十二經脈脈診을 運用한 醫家들은 《靈樞·衛氣》에서 五臟 六腑 營氣 및 衛氣의 概念을 定立하여 上(標) 下(本)의 動脈處를 連繫한 十二經標本脈診을 運用하였고, 解剖, 生理 및 病理的인 面에서 六腑를 十二經脈脈診에서의 繼續的인 運用은 不適合하여 《靈樞·經別》 《九針論》 등에서 臟과 腑의 表裏關係의 形成과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十二經脈脈診의 五臟脈을 甚 微脈로 區分하여 記述한 症狀으로 보면 六腑의 生理, 病理 및 治療에 대하여 새로운 概念을 確立하여 六腑의 下合穴과 五輸穴의 治療法을 創案하였다고 推論할 수 있으며, 余<sup>22)</sup>는 “《靈樞·本輸》의 手太陰脈의 循行이 手에서 起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手太陰脈의 描述 후에 井, 榮, 輸, 經, 合의 五輸穴의 論述하는 形式과 十一脈의 循行起止를 描寫하는 것은 《足臂十一脈灸經》와 같이 向心性이다.” 하였다.

한편, 《明堂經》의 會宗穴의 部位는 “在腕後三寸空中”하였고 楊<sup>18)</sup>은 “空中一寸有上, 中, 下, 總爲會宗”하였고, 《素問·通評虛實論》 “刺手太陰傍三痛 治癰疽” “刺足陽明及上傍三 治霍亂”하였고, 鄧<sup>7)</sup>은 “三은 一穴에 三針을 刺針하는 것을 意味하고 또 一穴은 經脈穴을 意味한다.”하였고, 《千金翼方·卷二十七<sup>25)</sup>》 “諸煩熱時氣溫病, 灸大椎百壯, 針入三分瀉之, 橫三間寸之”하였고, 《千金要方·卷二十九<sup>19)</sup>》 “凡《經》云 橫三寸間者, 則是三灸兩間, 一寸有三灸, 灸有三分, 三壯之處, 卽爲一寸”하였다. 그리고 鄧<sup>7)</sup>은 “古代의 針灸處方과 腧穴의 概念의 演變을 理解하지 못하면 解釋할 수 없으며…… 이는 古代의 一寸穴이며 三灸 혹은 三刺하는 一定한 部位의 範圍를 指稱한다.” 하였다.

또 《史記·扁鵲傳》 “(病)在血脈, 針石之所及”하였고 《論衡·順鼓篇》 “投一寸之針, 布一丸之艾于血脈蹊, 篤病有瘳”하였는데, 《明堂經》에는 원래 穴

名이 脈名인 穴이 많은데 十二原穴과 十五絡穴, 大迎, 人迎, 天府, 天池, 天容, 天窗, 天杼, 臑脈 등은 刺脈 혹은 刺戟하는 部位는 一定한 範圍이지 一定한 點이 아니며, 《靈樞·經脈》 “凡此十五絡者, 實則必見, 虛則必下, 視之不見, 求之上下, 人經不同, 絡脈異所別也.” 하여 絡穴 또한 固定되어 있는 點이 아니고 一定한 範圍임을 示唆하고 있으며, 鄧<sup>7)</sup>은 古代의 經脈穴은 《明堂經》 以後에 腧穴의 部位는 몇寸 몇分으로 定位가 되고, 一寸穴은 二穴 혹은 三穴로 나누어졌고 主治證도 區分되어 완전히 不同한 穴이 되어 後人들은 同一脈 혹은 同一穴에서 出現한 것인지 아닌지 區分이 困難하게 되었다.” 하였고, 또 鄧<sup>7)</sup>은 “各 經脈의 病候를 外側에서 治療하는 針, 灸治療의 部位 혹은 具體的인 穴名은 《本輸》 및 《明堂經》의 五輸穴에 歸入되었다.” 하였다. 以上을 綜合하면 十二經標本脈診은 十二經脈脈診을 運用하는 過程중에 發現된 脈診法으로 經脈의 形成, 各 經脈의 病理的인 狀況 認識의 正確性 및 治療法의 變化를 일으키는 契機가 된 脈診法이며 또 各 經脈의 病候 및 上下의 經穴의 各 經脈에 歸屬되는 動機가 되는 經脈診斷法으로 생각된다.

#### IV. 結 論

《靈樞·衛氣》의 十二經脈의 上下의 標本을 十二經脈의 縱的인 上下의 診脈處로 認識한 十二經標本脈診法에 對하여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十二經標本脈診法은 各 經脈의 十二經脈診을 運用하는 過程 中에 發現된 脈診法이며, 腕 部의 原穴에 해당하는 本部 및 脇 腋 項 頭 面의 “天”字가 있는 穴名의 “天容” “天窗” “天牖” “天柱” “天

府” “天池” “天五會(人迎)” 등은 標部의 診脈部位이며 治療穴이다.

2. 十二經標本脈診法은 各 經脈의 上·下部의 相互連繫되고 相應하는 診斷 및 治療의 部位로서 本脈과 標脈의 兩脈을 連結하는 自下而上의 初期 古代 灸經의 經脈形成을 深化 및 本脈部位의 經穴과 標脈部位의 經穴을 相互聯關을 認識하는 契機가 되어 各 經脈病候의 “上病下取 下病上取”의 治療法을 確立하는 理論的 根據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3. 十二經標本脈診法은 上下脈의 相應의 異常脈診의 徵候는 經脈病候의 明確한 診斷의 契機가 되어 十二經脈의 厥症 및 終絶의 概念을 定理하고 確立하는 脈診法으로 各 經脈의 病候를 治療하는 上下脈診處 혹은 上下穴 등의 各 經脈所屬의 經穴을 創案되고 配屬을 促進시켰다고 생각된다.

#### V. 參考文獻

1. 馬繼興. 馬王堆醫學文化. 上海: 文匯出版社. 1994: 22-27.
2. 嚴建民. 中國醫學起源新論.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9: 122, 137-145. 182-185.
3.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41. 79-89.
4. 馬繼興. 馬王堆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1-5.
5. 滑壽. 難經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1-4. 32.
6. 李景營.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385.
7. 鄧良月, 黃龍祥. 中國針灸證治通鑒. 青島: 青島

- 出版社, 1995: 1. 5-8. 17. 27-29. 48-49.
8. 王洪圖.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1328-1329.
9. 何愛華. 難經解難校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295-307.
10. 南京中醫學院 校釋.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58-59.
11. 王九思. 難經集注. 台北: 臺灣中華書局, 1985: 5-10.
12. 張山雷. 張山雷醫集·難經洵注箋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57.
13.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1.
14. 徐靈胎. 徐靈胎醫學全書·難經經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7.
15. 이정훈, 윤종화. 足臂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8; 15(1): 181-200.
16. 이정훈, 윤종화. 馬王堆 出土 醫書 中 陰陽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6; 16(2): 139-179
17. 河北中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11-120.
18.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成出版社, 1985: 398.
19. 孫思邈. 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380. 487.
20. 金富煥. 倉公傳에 나타난 秦漢 醫學思想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89-94.
21. 周一謀·肅佐桃. 馬王堆醫書考注.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 42-45.
22. 余自漢. 內經靈素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8-13.
23. 黃龍祥 主編. 鍼灸名著集成·鍼灸甲乙經. 北京: 華夏出版社, 1996: 56. 134-8.
24. 高文鑄 主編.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諸病源候論. 北京: 華夏出版社, 1997: 320, 378.
25. 孫思邈.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420.